

“섬문화는 인류 위기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가치있는 보고”

신안서 ‘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 세계 회원국 ‘신안 의정서’ 채택 섬 문화 다양성·발전 방안 모색

“섬문화는 인류에게 막대한 각종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가치있는 보고(寶物)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 ‘1004섬’ 신안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섬문화의 공존하고 우수한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공통적 어려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신안군은 8일 신안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에서 행사를 공동주최한 박우량 신안군수, 국회 섬발전연구회, 태평양관광기구(SPTO) 관계자를 비롯,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 구스데 나마루파 발리 바둥주 관광장, 올란드 페르도모스페인 마드리드관광청 국장, 제리 브런트 주 사모아 대한민국 명예영사, 하이메 알레한드레 주한 스페인대사관 관광영사, 드웨인 벤틀리 사모아관광청 총괄국장, 미카일 토노글로 전주대 호텔관광학과 교수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 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신안군과 국회 섬발전위원회, 태평양관광기구와 한국섬진흥원, 학계 그리고 스페인과 사모아, 인도네시아, 그리스 등 해외 전문가들이 섬 문화 다양성의 재발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의 노력 등 섬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오는 2023년 10월 ‘섬, 대한민국 문화 다양성의 보고’를 주제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을 위한 사전 국제 행사로 신안이 세계인이 모여 섬 문화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제안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이날 포럼은 ‘2022 세계섬문화다양성 신안 의정서’를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의정서 채택으로 신안이 세계 섬 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가 주최하는 포럼에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4개 중앙부처가 공동 후원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포럼은 ▲섬 문화 다양성 ▲지속가능 관광 ▲기후위기 대응 등 3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8일 오후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에서 열린 ‘2022 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에서 박우량 신안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첫번째 섹션 발제자로 나선 ‘트레거 알본 이소다’ 주한 마셜제도 대사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가치들’을 주제로, 섬 주민 스스로가 각 섬의 고유한 가치를 깨닫고 섬 다양성에서 그 가치가 중요한 존재임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류는 해양 관리인이자 보호자로 연대를 통해 섬 보존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관광’ 섹션 발제자로 나선 ‘올란드 페르도모’ 스페인 마드리드관광청 국장은 “과거의 것을 평가절하하기 보다는 전통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며 “관광객은 현지만의 특색을 원하고 있어 어업과 같은 과거의 것을 관광상품 개발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미식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기후위기 대응’에 기초 발제자로 나선 ‘하이메 알레한드레’ 주한 스페인 관광영사는 관광지로 떠오르면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사례와 그 대응책에 대해 제안했다. 그는 “관광발전으로 섬 고유의 문화가 변질되거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며 “원주민들의 삶이 개발로 영향받지 않고 개선되어야 하며, 생애주기 관리와 책임있는 에너지 소비로 지속가능한 섬 관광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각 섹션마다 다양한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행사 참가자들은 포럼 조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 퍼블릭 의정서’를 채택했다. 섬 의정서는 ‘세계 섬문화다양성 네트워크’를 조직해 세계 섬문화의 장의적으로 소개하는 장을 마련할 것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모범사례를 공유, 논의하고 ‘섬 기후변화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세계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 사무국을 신안에 설치하는 안과 매년 포럼, 전시 공연 등을 소개하는 장을 연 1회 이상 만들 것 등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포럼 조직위원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금까지 신안군은 국내 최초·최고가 아닌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해 ‘지역(local)이 곧 세계(global)’임을 생생한 사례로 증명해왔고, 오늘 포럼에서 세계인에게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렸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 세계 섬문화 다양성을 알리며 보존하고,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일구는 중심으로 신안을 더욱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일보 광주·전남 올해의 기자상 ‘대상’

김지을·정병호·김민석 기자...편집부분 양지영 ‘최우수상’



김지을



정병호



김민석



양지영

광주일보 김지을 정치부 부장, 정병호·김민석 사회부 기자가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맹대환)가 주는 ‘2022 올해의 기자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8일 심사를 통해 김지을 부장 등 3명의 기자가 쓴 ‘안전보다 돈이 우선...빨리빨리 공사가 부른 참변’을 선정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8일 심사를 통해 김지을 부장 등 3명의 기자가 쓴 ‘안전보다 돈이 우선...빨리빨리 공사가 부른 참변’을 선정했다.

특히 붕괴 현장과 관련된 감리보고서와 안전관리계획서, 각종 점검결과 등의 직접적인 자료를 전국 언론 최초로 확보해 기사화 했다.

광주일보는 아울러 건설현장의 관행적인 폐단이 전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광주일보 양지영 기자는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시리즈 편집으로 신문·통신 편집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문화재단 별관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법원 “위믹스 계획 유통량 초과는 상폐 사유”

위믹스, 거래소들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의 효력을 유지한 배경에는 거래소에 예고한 것보다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유통하는 행위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전날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가상자산은 주식의 내재가치

에 대응하는 개념을 상정하기 쉽지 않아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치기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전제했다.

이어 “발행인은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유통함으로써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투자자는 시세 하락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코로나 신규확진 사흘 연속 4000명대

전국 6만5253명... 방역당국, 당분간 느린 증가세 전망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4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2264명, 전남 2037명 등 430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에선 사망자는 없었고, 위중증 환자는 3명으

로 집계됐다. 집단감염은 광산구의 한 요양 병원에서 11명(누적 47명)이 한꺼번에 확진되는 사례가 나왔다.

전남은 사망자 1명, 위중증 환자 15명이다. 지역별로는 순천 362명, 여수 255명, 목포 251명, 나주 167명, 광양 166명, 무안 120명 등의 확진자가 발

생했다. 전남에서는 요양 병원·시설 48곳에서 10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6만 525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만4714명)보다 9461명 적은 것이지만, 1주일 전인 지난 1일(5만7069명)보다 8184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4일(5만9071명)보다는 6182명 각각 늘어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둔화했던 증가세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당분간 느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금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채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정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토지 금매

광주광역시 남구 입암동 692(호천 1지구) 대지 683.4㎡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 - 3605 - 8564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안남섭(81216-XXXXXX)
· 최후주소: 광주 북구 중문로84번길 37-24 (문흥동)

피상속인 망 안남섭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 12월 9일 2022년 12월 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2월 9일

· 상속인: 안재관(661110-XXXXXX) 서울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18, 304호 (대신동)
· 신고기간: 2022. 12. 9. ~ 2023. 2. 18.
· 채권신고처: 상속인 안재관의 주소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2. 10. 26.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본 회사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채권 금액이 있으시면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내에 이의 및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2월 9일
정명손해사정 주식회사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비동 1023호(오룡동, 지식산업센터)
청산인 박혜울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박경필(870626-XXXXXX)
· 최후주소: 광주 남구 포충로 600-10, 비동 208호 (지석동, 대평아파트)

피상속인 망 박경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 12월 9일 2022년 12월 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2월 9일

· 상속인: 1. 박달수(590426-XXXXXX) 광주 광산구 신창로138번길 15-15, 301호 (신창동)
2. 김환숙(670320-XXXXXX) 광주 남구 포충로 600-10, 비동 208호 (지석동, 대평아파트)
· 신고기간: 2022. 12. 9. ~ 2023. 2. 18.
· 채권신고처: 상속인 1. 박달수의 주소

해산 및 채권신고(2차)
본 회사는 2022년 11월 08일 주주총회 서면결의로 의하여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2월 9일
주식회사 대한영재교육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16번길 14(월계동)
청산인 권희숙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교문의 227-9600 | 신문구독 220-0551 | 예약구독 220-0550